전북도-연해주간 전략적 교류협력 추진

제1회 양 지역 국장급 화상회의 개최… 농업 · 관광교류 협력방안 · 온라인 협력 세미나 개최 등 논의

전북도가 신북방국가 교류의 교두보 지역인 연해주 정부와 지난 21일 전북도 국제교류센터에서 제1회 양 지역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9년 9월 전북도와 연해주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농업, 관광 등 교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계획된 교류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첫 번째 화상회의로 전북도 한민희 대외협력국장, 연해주 알렉세이 스타리치코프 국제교류청장 등 6명이 참여했다.

이번 화상회의에서 전북도와 연해주간 주요 논의내용은, ▲양 지역간 공동 인스타그램 운영 등을 활용한 관광교류 협력방안, ▲전북도와 연해주간 대표 농업 박람회에 양국의 기업 참여 등 농업교류, ▲제1회 양국의 분야별(농업, 관광, 음식 등) 온라인 협력 세미나 개최, ▲전북도-연해주간 MOU 체결(2021.11월) 등 지역 간 분야별 교류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향후, 전북도와 연해주는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곧바로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양 지역의 관광, 정책정보 등이 업로드된 인스타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농업, 음식 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교수 등 20여명이 참가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6월중에 개최함으로써 양 지역의 상생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신북방국가 교류의 교두보 지역인 연해주 정부와 지난 21일 전북도 국제교류센터에서 제1회 양 지역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화상회의에 앞서 전북도는 연해주 극동연방대의 한국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전북도 전통문화 연수('버꾸춤' 영상 교육)를 총 10회 추진할 계획으로, 연수 시작에 맞춰 기념식과 버꾸춤에 사용할 '북' 전달식을 개최했다.

또한, 화상회의에 앞서 전북도는 양 지역의 문화교류 일환으로 해외 최초로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연해주 극동연방대의 한국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전북도 전통문화 연수('버꾸춤' 영상 교육)를 총 10회 추진할 계획으로, 연수 시작에 맞춰 기념식과 버꾸춤에 사용할 '북'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연해주 정부, 극동연방대 한국어학과장, 한국어학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러시아 연해주 거주 전북도 전명수 국제교류자문관이 우리도 대표로 참석해 대외협력국장 축사를 대독했다.

한민희 도 대외협력국장은 "러시아 연해주는 전북도 첫 번째 신북방 국가 교류지역으로 향후 북한, 중국, 유라시아, 동북아 등 교류 추진을 위한 중요한 요충지"라며 "앞으로 극동연방대, 고려인 민족학교 등을 통한 공공외교 활동과 함께 연해주 정부와 우리도가 상생 발전 가능한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 전략적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농촌에서 쉼표하나, 캠핑농장'

전북도, 캠핑 · 텃밭 결합… 올해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선정

전북도가 캠핑과 텃밭 농장을 결합한 '캠핑농장' 사업을 추진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캠핑 인구 증가에 발맞춰 농촌관광을 결합하며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주말농장을 보완하고, 농촌관광의 개념을 가미한 '농촌에서 쉼표하나, 캠핑농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캠핑농장'은 농촌 마을에 캠핑과 텃밭을 결합한 개념으로 마을 주민에게는 고정수익 창출을, 도시민에게는 휴식과 지역농산물을 제공하며, 도농 교류 활성화와 농촌 체류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도내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캠핑농장'으로 선정했다.

대상마을은 익산 성당포구, 김제 수류산골, 완주 두억, 무주 명천, 장수 용바우등 5개소 이다.

캠핑농장 참여 가족은 연간 농촌마을에서 캠핑 10회와 텃밭 7평을 분양받게 되고, 농산물 식재 행사가 시작하는 5월부터 수확이 마무리되는 10월까지 수시로 마을에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자주 텃밭 관리를 하지 못하는 텃밭 주인을 위해 농촌 마을 주민이 텃밭을 세심히 관리하고, 농작물의 생육 과정을 사진으로 전송해, 텃밭 주인이 방문이 뜸할 때는 수확한 농산물도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캠핑농장 참여 가족에게는 농부체험과 사진첩, 로컬푸드로 구성한 바비큐 바구니도 제공돼 농촌마을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다.

지난 15일 휴일을 맞이해 캠핑농장 식재 행사를 처음으로 진행한 '장수 용바우 마을'에서는 지역주민과 참여 가족이 어우러져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장수 용바우마을 서창성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농촌체험 방문객이 줄어 마을에 활기가 없었으나, 캠핑농장을 준비하는 동안 마을주민들이 기대에 차있다"고 언급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캠핑농장은 휴식에 집중돼있는 캠핑에 농촌주민과 공감하는 농촌다움을 가미한 도농상생프로그램이다"며 "캠핑 가족이 지속적으로 캠핑농장에 방문해 농작물이 커가는 모습도 학습하고,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거리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공공실내수영장 위생관리 수질기준 적합여부 검사 추진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한 공공실내수영장에 대해 수질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 16개소 공공실내수영장에 대해 6월 11일까지 소독시설 점검 등 위생관리와 수영장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항목으로 유리잔류염소, 결합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대장균군과 비소, 수은, 알루미늄 등 수질기준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수질관리 컨설팅을 실시해 공공수영장 위생 안전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에게 체육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수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다"며 "이용객들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순환관광버스 재개 · 관광객 유치보상금 확대

전북도, 순환형 · 코레일 연계형 등 2개 유형 41개 코스
여행사에 숙박비 · 차량 임차비 등 일부 보상금 지원

전북도가 순환관광버스 운영과 관광객 유치 지원 확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에 숨 불어넣기에 나선다.

도는 지난 21일 도민의 코로나19 여파로 지친 피로감을 극복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그동안 잠정 중단됐던 전북 순환관광버스를 도내 순환형 및 코레일 연계형 등 2개 유형 총 41개 코스를 재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지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전북 순환관광버스는 주말은 물론 평일(화, 목, 금)과 공휴일에 운영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 체크와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짜임새 있는 코스 선정으로 생태관광, 체험관광을 보다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계절별 유명 관광지와 연계한 비대면, 숨겨진 관광지 코스를 편성하여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여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 순환관광버스 도내 순환형은 9,000원~1만원, 코레일 연계형 당일코스는 5만3,000원부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누리집(www.jbtour.or.kr) 또는 전화(1588-1466)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광역형(수도권, 경상권)은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추후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관광객을 도내로 유치한 여행사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확대 인상 추진한다.

관광객유치 여행사 보상금은 도내에서 숙박 및 관광하는 여행상품으로 모객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숙박비와 차량 임차비 등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도내에서 숙박하는 관광객 1인당 지원하는 숙박비를 당초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확대하며, 인원별로 차등 지원되는 차량 임차비의 경우에는 도내에 등록 주소지를 둔 여행사에 5만원을 추가 지원해 도내 인바운드 여행사의 사업 확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5월 중 변경계획 공고 및 홍보를 실시한 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수의 백신접종 완료로 집단면역이 생성돼 자유로운 여행과 일상 회복이 하루빨리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순환관광버스 운영과 관광객 유치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숙박업소 등 도내 관광업계의 활력 부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귀농귀촌인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모집

전북도가 귀농귀촌인들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도는 지난 21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2021년 귀농귀촌인 농어촌 워킹홀리데이'를 운영하고, 2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1년 귀농귀촌인 농어촌 워킹홀리데이'는 귀농귀촌인들이 농업·농촌 분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어촌 일자리 탐색 교육과정이다.

교육은 총 2단계 과정이며, 6월 8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한다.

1단계 과정은 농어촌 일자리에 대한 기초교육(이론)과 현장탐방으로 구성된다.

2단계 과정은 농어촌 경영체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교육 참여는 농어촌 일자리 탐색을 원하는 귀농귀촌인이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누구나 가능하다.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www.jbworkplus.or.kr)를 통해 상세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전북도·무주군·부안군·임실군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가 각 1개 권역을 맡아 총 4개 권역으로 운영한다.

또, 방역수칙에 따라 교육인원을 각 권역별 15명으로 제한한다.(권역별 15명 선발, 총 60명 참가모집)

특히, 도는 교육 참가자 중 10명을 선발해 5일간 농어촌 경영체에서 직접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에서 직접 일자리를 탐색하고 이에 따른 활동비(4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 참가자는 센터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 일자리·일거리 은행' 등록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지원사업 정보, 채용정보 및 취·창업지원사업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임실군 공고 제2021 - 652호

임실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공람공고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400-18번지 일원에 임실소방서 신설사업 추진에 따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임실 군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가.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공청사	소방서	임실읍 이도리 400-18번지 일원	-	증)8,127	8,127	금회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공공청사 (소방서)	• 공공청사 신설 - A - 8,127㎡	• 소방서가 미설치된 임실지역에 소방서 신설을 통해 대국민 소방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금회 군계획시설(공공청사)을 신설하고자 함

2. 열람(의견제출)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상
3. 열람(의견제출)장소 : 임실군청 건설과, 임실읍사무소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건설과(☎063-640-2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1일 임 실 군 수